<교회표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P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 백 운 향

교회창립 1904. 1. 5

8/2016

2016년
"듣고!, 믿고!, 따르고!"

1 백운교회 소식지 창간 2014년 4월 6일 대표전화 043/652/9191 제 29호 2016년 8월 7일 발행 [월간]

마음의 거울

담임목사 신상균

##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이 글은 광복절 노래의 가사이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광복절 노래를 배웠고, 광복절이 되면 모두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 당시 가사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노래의 가사가 마음을 감동시킨다. 똑같은 흙이요, 똑같은 바닷물이지만 광복을 맞이하여 만져보는 흙과 바닷물은 전혀 새로운 흙과 바닷물이었음에 틀림없다. 광복 전의 흙은 고통의 쓴 흙이었고, 바닷물은 눈물의 짠 물이었지만, 광복 후의 흙은 새로운 시대를 건축하는 희망의 흙이었고, 바닷물은 넓은 대해를 향해 퍼져가는 기쁨의 땀방울이었을 것이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새로운 세상이요, 변하지 않은 세상이지만 희망적인 세상이 되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은 시절이 있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 흙으로 벽돌을 만들며 고난과 압박 속에서 설움을 당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새로운 세상을 얻으려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담배로 인해 힘들어 하는 사람이 담배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고, 알콜 중독으로 인해 손을 떨며 불안해 하는 사람이 알콜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과연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나의 작은 습관 하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과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역사의 힘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 그 힘이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 있게 한다. 우리는 그 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주고 싶어 하신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이 될 것이요, 우리의 물은 고난의 물이 아닌 기쁨의 물이 될 것이다. 광복절을 맞아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백운치안 센터장 취임 인삿말

##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백운면되었으면

선진교통문화를 이룩하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교통문화를 통하여 많은 혜택과 경제적인 편리함을 누리고 있으며 이제 일상생활에서 각종 교통수단의 운행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불행한 체험들을 직간접으로 겪으며 살고 있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하면 교통사고를 또한 생활에서 뗄 수 없는 단어가 되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통질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교통수단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밀접한 육상교통의 측면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주체로서의 운전자들이 제반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늘 사람의 안전을 고려한 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중교통의 운전자는 많은 인명을 담보로 운전하는 만큼, 운행 시에는 물론 승하차시와 주정차 시에도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수년 전부터는 교통의 단독사망사고가 이륜차, 사륜오토바이, 등 단독사고의 유형이 증가하는데 특히 우리 백운 지역의 어르신들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시고 보행자의 안전이나 운전자의 안전을 잊지 말고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린다.

선진국은 교통사고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적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동차문화의 역사가 그들보다는 짧아서 여러 면에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통계적으로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의 선진국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비교 수치가 높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무역량이 세계 8위에서 13위까지 차지하고 있다.

지구상 200 여 국가들 중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이기도 하다.

인명사고는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한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는 안 될 공공의 적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교통사고, 교통사망사고가 없는 행복한 백운면과 우리나라가 되도록 맡은 바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 설 것이다.

〈경위 우준명〉

12th Jecheon 제천국제음악영화제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August 11-16, 2016

##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 The 12th Jecheon Int'l Music & Film Festival

**개막식**
**일시** : 2016.8.11(목) 오후 7시
**장소** : 청풍호반무대
**내용** : 개막 선언, 제천영화음악상 시상식, 홍보대사 인사, 특별 공연 등

**폐막식**
**일시** : 2016.8.16(화)
**장소** : 제천시 문화회관
**내용** : 국제경쟁부문 시상식, 특별공연, 폐막 선언
**폐막작** : 세계 음악영화의 흐름(국제경쟁부문) 대상 수상작

12th Jecheon 제천국제음악영화제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August 11-16, 2016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

### 바이올린 티처/The Violin Teacher

제작년도 : 2015, 제작국가 : Brazil

감독:세르지오 마차두
(Sérgio Machado)
상영장소:
청풍호반무대
11(목) 19:00
메가박스 3관
12(금) 13:00
메가박스 1관
14(일) 10:30

**〈영화 줄거리〉**

바이올리니스트 라에르트는 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인 OSESP의 단원이 되기 위해 수 년간 준비해왔고, 빈곤한 형편의 가족들은 그에게 큰 기대를 건다. 하지만 큰 부담으로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단원 오디션에서 연주하지 못한다. 가난한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상파울루의 가장 크고 위험한 슬럼가인 헬리오폴리스의 공립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것.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라에르트는 다시 연주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학생들, 그 중에서도 사무엘과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는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하던 중 OSESP의 새로운 오디션 소식을 알게 된 라에르트는 리허설과 수업 사이에서 갈등한다. 선택은 쉽지 않기에, 라에르트는 최후까지 선택의 순간을 미뤄보지만 결국 배신감에 분노하는 학생들을 뒤로하고 학교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헬리오폴리스에서 일어난 비극을 겪은 학생과 선생은 작별 무대에서의 공연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나가 된다.

〈주최측 제공〉